

SCI 신드롬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대학마다 개혁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른바 SCI(Science Citation Index) 신드롬(syndrome)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승진이나 재임용은 물론이고 교수를 채용할 때는 지원자의 연구실적이 중요한 판단근거로 되고 있는데, 물론 지원자의 논문이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SCI 학술지의 논문편수는 국가간의 과학기술력의 우열을 비교하는 잣대가 되고 있고, 대학간, 연구소간 연구원들의 우열을 가름할 때도 없어서는 안될 근거가 되고 있다.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판단할 때도 SCI 학술지 논문게재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도록 되게 되자, 대학마다 사정이 꼭 같진 않겠지만, 특히 대학원생수가 절대 부족한 대학들의 교수님들은 죽을 맛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각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SCI 학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되고 있고, 실제로 투고논문수가 격감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SCI 신드롬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이젠, 이른바 impact factor라고 하는 도깨비까지 등장해서 한 편의 논문이라도 impact factor가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또 다시 우열이 갈라진다. 우리나라도, SCI 논문편수의 시대를 지나, 이제 impact factor의 도깨비혹이 달린 SCI 신드롬 사회에 접어든 것 같다. 실제로, 올해 신청을 받은 우수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실적란에는 드디어 SCI가 제시하는 소위 impact factor를 곱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의학적으로 볼 때 신드롬 즉 증후군이란 피터팬 증후군, 신데렐라 증후군 등과 같이 어떤 일이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사회의 어떤 main stream을 이루는 현상을 일컫는 사회병리학적인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과학, 우리나라 학계의 최근의 SCI 사랑은 증후군을 넘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떤 일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면 편집증이 되고, 더 심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의 SCI 신드롬은 국가의 과학기술 논문 수준에 대한 대외 인지도는 분명히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겠지만,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나아가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Nature나 Science 같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 같이 학문의 탁월성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논문이 투고되어야 하는 경우나, 세계 학계에 자신의 연구결과가 신속히 알려지고 검증받아야 할 경우 SCI 학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고분자과학만 예를 들더라도 일반적으로 Macromolecules에 게재되는 논문은 탁월성에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Macromolecules 아닌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그만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공학이나 기술적 가치가 큰 논문들의 경우 그 성격에 알맞는 학술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논문이 특수한 분야의 연구에 한정될 때 그 인용도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때로는 SCI와 무관한 학술지에 투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전공별 학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SCI 잣대에 의한 획일적인 연구업적 평가는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국가적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기술적 논문들은 SCI 학술지보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우리말로 발표될 때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SCI 신드롬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우수한 연구결과를 좋은 학술지에 투고함으로써 학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도 학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외

에서 발행되는 SCI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고, SCI 학술지에 게재되는 개인이나 대학, 또는 연구소 나아가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문편수가 많아짐으로써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계가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추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적 인식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퍼져있는 SCI 신드롬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듯하다. 필자가 속해있는 대학에서는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 2년만에 SCI 논문을 한 편 이상 게재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한 적도 있었다. 또한, 해마다 발간되는 연구업적집에는 개인별로 SCI 학술지 논문이 몇편인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고, 심지어 성과급이란 이름으로 월급이 차등지급된다. 이런 현실이니, 특히 대학의 근본이념인 교육이 망각된 채 연구에만 매달리는게 오늘날 SCI 신드롬에 처해있는 대학인들의 아픈 모습들이다. 대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상황으로 SCI 신드롬이 퍼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한 연구자는 자신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impact factor가 큰 SCI 학술지에 실어 세계가 그 결과를 인정할 때 개인의 영광은 물론 국가의 영광도 따르게 되고,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탁월성에 대한 보상도 이러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짐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논문들이 모두 SCI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탁월한 논문이고 국내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그렇고 그런 논문이라는 연구자 스스로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 연구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가는 형국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도 SCI 신드롬은 만연한데, 연구비 지원계획서에서 SCI 학술지 게재논문이 없으면, 연구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던가.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 스스로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속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SCI 신드롬은 신드롬이 아니라, SCI 인용지수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의 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추어 우리 학자들의 논문의 SCI 학술지 논문편수와 인용도를 높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 SCI 인용지수가 높아야 하고,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이란 것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SCI 논문편수와 인용지수의 계량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중에 가장 부끄러운 속성들인 ‘빨리빨리’ 사고와 ‘체면문화’ 등이 우리 학계의 SCI 신드롬에 스며든게 아닌가 하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해당대학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다른 대학이 하니까 우리 대학도 해야한다는 식의 부화뇌동, 올림픽의 금메달 같이 과학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한 계량적 상징으로서 SCI지수에서 보다 조속히 대만을 따라잡고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과 체면의 속성들이 학자들에게 SCI 신드롬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펼쳐버릴 수가 없다.

세기가 바뀌는 이 때, 한 번쯤 학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SCI 신드롬이 과연 우리 학문의 발전과 국가적 과학기술력 신진도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지, 아니면, 빅딜이니, 구조조정이니 개혁이니 하는 등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자들에 대한 쇄사슬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끝으로, 대학에서 부는 SCI 신드롬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 학회들은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를 SCI에 수록되는 학술지로 만들기 위해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많이 인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고, 국내 학술지에 좋은 논문을 많이 투고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SCI 신드롬의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역부족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학술지가 SCI에 등재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SCI 신드롬에 맞서 우수한 논문들이 우리 학술지에 투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대부분은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드물게 투고논문에 대한 비전문가의 요점을 벗어난 질문으로 저자를 당혹하게 할 때가 있다는 불평과, 외국학술지의 경우 게재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고, 이들이 대부분 SCI 학술지인데 반해 구태여 비싼 게재료를 내면서까지 SCI 학술지가 아닌 우리 학술지를 애용할(?) 필요가 없다는 불만에 귀기울려야 한다. SCI 신드롬이 바람직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